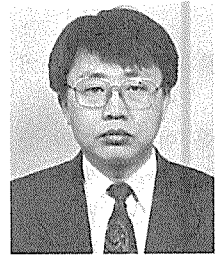


# 전세계 일류 구매자와 생산자가 몰려든 '95 동계 가전 박람회



정 재 관  
본회 자료과 대리

본회는 지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95WCES에 25명의 참관단을 구성. 홍창물산 노회영 상무를 단장으로 파견했었다.

미국전자공업협회(EIA)가 주최한 동전시회는 1,800여개사가 출품. 9만명에 이르는 참관인이 내방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면적도 92,000 S/M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에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와 힐튼호텔, 사하라호텔, 미라지 호텔 등 각 호텔별 전시장 모습도 눈에 띄었다.



## 「전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킨 '95 동계 가전박람회」

1995년 동계 세계 가전박람회(CES :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업무 분야별 특징들을 전부 보여주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가전업계에 대한 독창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을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동계 CES는 1994년 기준 560억 달러가 넘는 공장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전업계에 대표적인 행사라 상상이 되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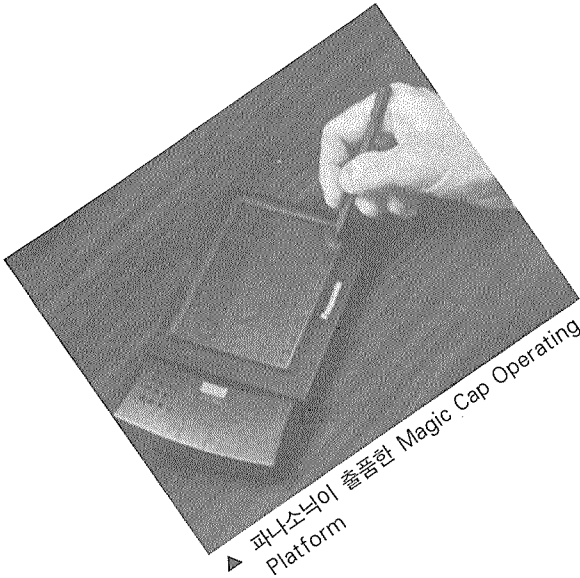
남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오디오·비디오 제품, 컴퓨터, 멀티미디어에서 자동차 운항 장치 및 무선 통신분야의 최신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이 망라되었다. 가전업계 전반에 대한 완전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구매자들이 라스베가스로 모여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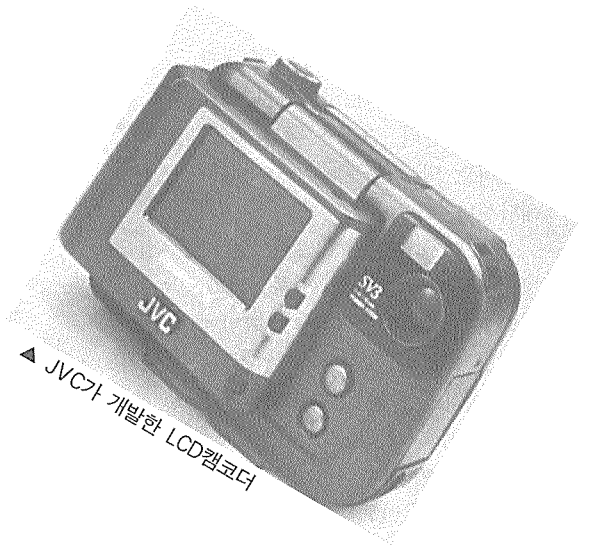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본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는 EIA/Consumer Electronics

Group(EIA/CEG)의 관계자는 말한다. “지난 5년동안 저희 동계 CES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본 업계의 유일무이한 초대형 전시회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1995년 동계 CES에서는 쌍방향 텔레비전과 인텔리전트 수송시스템(ITS)와 같은 영역이 추가되었고 가정용 극장 및 이동 전자제품 등과 같은 영역 등은 매장을 보다 넓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계 CES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시범장이 되어



▶ 파나소닉이 출품한 Magic Cap Operating Platform



▶ JVC가 개발한 LCD캠코더



왔는데 그와 함께, DBS시장의 향 후 미래, 전자게임기의 추세, 갈수 록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제품 의 원가회수 문제 및 전자게임기 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적정제품가 수준 등과 같은, 가전업체의 중요 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토론을 벌이 는 모임도 여러차례 열렸다.

### 세계 주요 구매자들과 만남의 장

생산업자가 동계 CES에서 제품 을 전시하는 데 있어 추구하는 가

장 근본적인 가치는 CES가 지난 27여년 동안 통상적으로 유치해 왔 던 국내외의 고위급 주요 구매자들 을 만나는 것인데, Armes, Babbages, Best Buy, Boscov's, Circuit City, Computer City, Dayton Hudson, Egghead, HiFi Buys, J.C.Penney, Kmart, Lowes, Montgomery Ward, Myer-Emco, Office Depot, Revco, Ritz Cameras, Service Merchandise, Spiegel, 및 Staples 등은 본 전시회에 참가

한 대형 소매대리점 가운데 하나이 다.

### 컴퓨터, 가정용 극장 제품 인기

바이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내 참가자의 66%가 최종 구매결정 행사자로서 혹은 제품 구매시 회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번 전시회에 참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업무

목적과 관련이 있는 제품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 국내 구매자의 20% 이상이 컴퓨터, 가정용 극장 제품, 카오디오 및 이동통신 제품이라고 대답했다.

본 응답자 가운데 30% 이상은 가정 및 휴대용 오디오 제품, 전화, 비디오 제품이라고 답했다. 그밖에 관심있는 분야로는 전자게임기(14%), 전화자동응답기(19%), 무선 전화(18%), 고성능 오디오 제품(17%), 다기능 미디어제품(12%), 이동안전장치(17%), 운항장비(6%)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해외바이어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분야는 오디오(28%), 비디오(21%), 가정용 극장제품(19%), 이동형 전자제품(19%), 컴퓨터(14%) 중인 경향을 보였다.

### 제품영역별 전시장 세분화

동계 CES에는 무엇보다도 최신 제품에 대한 소개, 변화에 빠르게 적응시킨 주제를 다룬 본회의와 워크샵, 그리고 30여종에 달하는 가



▲ Sony사가 출품한 GPS시스템

전제품을 전시해 놓은, 백만여 평방피트의 전시장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매장을 더욱 넓혀 이동형, 휴대용 및 무선제품과 함께 전자게임기, 멀티미디어, 쌍방향 텔레비전의 매장도 눈에 띄었다.

전자 게임기 전시관 건물 3개는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남쪽 6번 전시구역에 붙여 보다 좋아진 설비와 상담센터, 식당 등을 갖추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 인접

한 중앙에는 게임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에서 전시한 업체로는 Nintendo와 Sega를 비롯해서 Acclaim Entertainment, Accolade, Advanced Gravis, Atari Interactive Magic, JVC Musical Industries, Kemco America, Konami(미국), Lucas Arts Entertainments, Philips Media, Sony전자출판, Viacom New Media 등 여러기업이 있다.

이번 동계 CES는 계속해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제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케팅 전략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CES에 참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무실 및 재택사무실(SOHO:small office/home office)분야가 지난 몇년간 주요 가전제품 유통업체들에게 있어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CES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 3DO 플레이어 및 무선 원격 조정기



이번 '95전시회에 참가한 전시업체 가운데는 Acer America-AST컴퓨터, Bogen커뮤니케이션, Brother 인터내셔널, Compag 컴퓨터, DeLorme 매핑, Disney 소프트웨어, Effective 솔루션, Hewlett-Packard, IBM, 인텔, Leading Edge Products, 마이크로소프트, Maxtor, Psion Rolodex, Royal컴퓨터 비즈니스 프로덕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워드퍼펙 및 X-10사 등이 있다.

이동사무용품, 휴대용, 호출기 및 무선제품업체가 입주해 있는 전시건물은 매장을 좀 더 확대시켜 실제면적만 해도 최고 2만 평방 피트에 달하는 자동차 오디오 전시업체를 추가로 입주시켜 본 전시회의 이동형 제품 매장들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전시관에 들어있는 전시업체로는, 이번에 새로 참가한 Maxtor를 비롯해서 모토로라, 노키아, 모빌폰, OKI통신, Cellstart, 및 Technophone 등이 있다. 그밖에

이동형 제품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업체로, Accele전자, Alpine전자, Audiovox, Avalanche, BEL-Tronics, Blaupunkt, Boss오디오, Carver/KLW오디오, Cerwin-Vega, Clarion판매(주), Eclipse by Fujitsu Ten, Infinity 시스템, JBL가전(주), 인터내셔널 Jensen, KEF전자, Monster전선, ORA전자, Precision Power Pyle공업, Scosche공업, Stillwater디자인, Velodyne 및 Whisler 등이 있다.

전통적인 가전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범주들 역시 계속해서 동계 CES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디오 하드웨어 제품 전시업체 가운데 특징적인 업체로는, Aiwa, Casio, Celestion-(KH 아메리카), Matsushita 전기, 파이오니아 전자, Sanyo Fisher(USA) 및 Sony전자 등이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새한정기, 한창,

맥슨전자 등이 세계 우수기업들과 나란히 전시제품들을 보여 주기도 했다.

비디오 하드웨어 제품 전시업체로는 케논, Dolby Lab, Faroudja Lab, JVC, 파나소닉, 샤프와 톰슨 등이 있다.

호텔 전시장에도 구매자들이 몰려

본 CES에서는 Mirage 호텔의 매장도 볼 수 있는데, HTP인터내셔널, Harman Consumer Group, Harman Kardon, Sonance 및 맥킨토시 연구소와 같은, 가정용 극강제품 및 일반 소비자용 전시업체들이 보였다.

컨벤션센터 부근의 라스베가스 힐튼호텔에는 오디오, 비디오, 개인용 전자제품 및 건강치료 제품 및 Phone Mate와 Southwestern벨 통신과 같은 전화업체들이 입주했고, 또한 이 힐튼호텔에서는 워크샵과 함께 업계전망 및 기조연설 등 전혀 새로운 전문적인 관점을 제시한 본회의 등이 개최됐다.

한편 특수 오디오 제품은 Sahara호텔에 입주 전시됐는데 고참 비디오 전시업체는 물론 Thiel, Conrad-Johnson 디자인, Cardas 오디오 및 McCormack 오디오 등을 이곳 전시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금년 전시회에서는 전시회관이 두개로 산업 및 제품별 전시관이 있는데 각기 보다 넓은 의미의 제품영역 구분에서 주제별로 각기 연계 전시구역을 배열하였다.

Multimedia World 잡지에서 후원하는 Multimedia전시관의 경

우에는 올해로써 두번째로 이번 CES에 참가하게 됐다고 한다. 이 전시관에는 Times Mirror 멀티미디어, Micro star, SRS연구소, Midisoft 코퍼레이션, TDC인터랙티브, Putnam 뉴 미디어 및 ProDC와 같은 업체들이 들어있어 쌍방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전반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본 전시관에 들어있는 멀티미디어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시업체 가운데는, Altec Lansing 멀티미디어, Creative 연구소, Discovery 채널, Lyte Optronics, Pacific 오토메이션, Roland 코퍼레이션 USA, SRS연구소, Thinkware와 Time Warner 인터랙티브 그룹 등이 있다.

IVHS 전시관은 CES가 이번엔 새로 마련한 전시관으로 각기 지능운행장비에 있어 일각연을 갖고 있는 Cobra, Cory phaeus 소프트웨어 및 Delco사 등의 제조업체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1995년 동계 CES에서부터는 소프트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여, 처음으로 업계 혁신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혁신제품 전시관도 별도 마련하여 전시됐다.

1994년 동계 CES에서는 개최 첫날 전례없이 많은 수의 행사 등록자들이 모여들어 여느때와 달리 등록절차 구역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줄을 서야 했지만 이번 대회 운영측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로 LVCC앞에서 있기 편하도록 면적을 좁다

크게 만든 등록대를 만들었고 등록절차를 간소화 시켰을 뿐 아니라 등록창구를 늘린 것을 볼 수 있었다.

### 라스베가스 전시회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가전 박람회가 정체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떠들석하게 주의를 끌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제품범주는 미국에서 가장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부 출판업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판매활동의 상당부분은 북적거리는 컨벤션 센터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구매자의 관심을 끄는데 열심인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언제가는 행사참가비용이 7자리를 넘어설 것이라고 비용문제를 언급하면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놓고 구매자들과 언론매체 종사자들을 리무진으로 모셔가고 있기 때문이다.

Time Warner 계열의 Time Warner Interactive사와 Viacom 계열의 Viacom New Media사 등이 두 기업은 이번 전시회에 제품을 전시하지 않았다. 더우기, 동경주재 Sony사 계열인 Sony Electronics Publishing에서는 부스를 갖는 대신 컨벤션 센터에 Meeting Room만 빌린 것이다. 이들 세기업은 모두 1994년에는 부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먼저번 해에 지출한 비용과 비교하여 최소 50%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부스를 얻으려고 법석을 부리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다.

쌍방향 출판업체에서는 이번 전시회에서 4가지 CD-ROM타이틀을 선보였다.

이와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단지 비용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 막 출발한 다른 수백개의 멀티미디어 출판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비용을 감수하면서) 자사의 새로운 타이틀을 전시하기 위해 부산을 떠는 동안 아늑한 분위기에서 구매자들과 일대일 상담을 벌이면서 다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이 매진된 이번 동계 CES 전시회를 후원하고 있는 미국 전자공업 협회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동차나 리무진에 사람들을 태워 전시장 밖으로 대려간다는 것은 정말 업계 전반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한 전시회 대변인은 불만을 토로한다.

한편, 판매자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컴퓨터, 가전제품,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간에 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조업체에서는 각자의 업무영역을 거르는 각종 전시회가 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라스베가스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다수가 11월에 개최되는 Comdex 컴퓨터에 참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 무역박람회에 대한 식상

“이번 전시회처럼 여러개 영역이 한데 합쳐진 복잡한 무역박람회는

신물이 납니다.”라고 출판업체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그의 투정에 따르면 작년 CES에서 Sony가 1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데 반해, 이번에는 파견인원도 줄이고 부스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만 달러 정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Sony Computer Entertainment에서는 Alexis Park호텔에서 구매회사들과 만나 상담만을 했다.

게다가 이번 전시회는 시기상으로 멀티미디어 출판업체들에게 안 좋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업체 대부분은 새로 선보일 만한 타이틀 수가 극히 제한된 상태라고 전했다.

가전제품 소매상들은 호텔 스위트룸과 2천여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는 회의장 사이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당기는데 진력이 난다고 말했다. 뉴우저지주 Secaucus소재 Harvey Electronics 사는 호텔 스위트룸쪽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이며, 확실치는 않지만 행사장에서는 만나절도 채 안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한편, 많은 상품들이 컨벤션센터 전시장에 처음 등장 했다. 6개 채널의 가정극작용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신제품에 특허를 출원한 샌프란시스코 소재 Dolby Laboratories Inc.에서는 동경소

재 Pioneer Electronics Corp. 계열사인 Pioneer Electronics U.S.A.를 비롯한 굴지의 몇몇 제조업체들을 통해 이번 행사장에서 이 제품을 전시했다. 또한 동경소재 Clarion Corp. 계열인 Clarion Corp of America에서는 지도 정보자료에 접근하는데 있어 CD-ROM을 사용하고 있는 음성-추진 자동차 운행장치를 선보였다.

가정용 오디오 분야에서는 동경주재 TDK Corp의 계열사인 TDK Electronics Corp에서 60분 분량의 디지털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5인치짜리 녹음용 CD신제품을 선보였다.

### 호텔스위트룸에 마련된 비디오 디스크 제품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전시회에 가장 열심인 전시업체 중 적어도 한업체 정도는 행사장 밖에서 모셔와야 할 것 같다. 바로 Sony Corp와 네덜란드 거대기업인 Philips Electronics N.V.로서 이들 업체들은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자신들이 선보이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레이저 기술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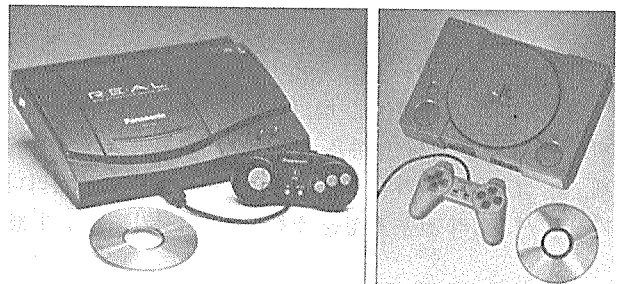
영화 전부를 상연할 수 있는 신세대 기술분야의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겨루기 위해 Toshiba Corp와 Time Warner Inc와 사활이 걸린 일대 접전을 벌였다.

대회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있어 왔다.

작년 미국 EIA에서는 의례 개최해오던 2번째 전시회인 시카고 하계 CES전시회를 필라델피아에서 가진 한 유별난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 Inc와 Infotainment World Inc가 이끌고 있는 한 경쟁단체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새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시기 또한 같은 주말로 잡아놓았다. 양쪽 해변에서 부스를 설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까다로운 제조업체들이 갈수록 압력을 가해 오자 EIA에서는 자체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가) 판촉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며, 인터넷 및 가상실현을 비롯한 분야에서 연간 8개의 전시회를 주최해 오고 있는 커네티컷트 웨스트포트 소재 Mechler Media Corp의 Alan Meckler사장은 말한다. 앞으로(전시회 분야에 있어) 재편성 작업이 있을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 파나소닉의 최신제품인 3DO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왼쪽) 및 소니사의 차세대 Play Station System.